**2020년 제 16차 모유수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강의 질의 응답**

1. 모유수유아는 집에서 체중계로 체중 측정을 권장하시나요

**불충분한 모유 공급 (실제이든, 그렇게 생각하든) 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아기의 성장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체중계로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. 집에서 체중 증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수 일 간격으로 체중을 재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체중계의 오차가 많고 변동이 많아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못합니다. 모유수유상담가의 도움을 받거나 의료 기관에서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**

1. 수유시 양쪽 모두 수유하려면 다른 측으로 옮긴 이후 아기가 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조언하는 것이 최선일까요

**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데 수유양이 적절하다면, 즉 아이의 성장이 정상 범위 안에 있다면 굳이 양쪽 모유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만, 수유양이 적고 아이가 실제로 체중증가가 불량할 경우 늘리는 방법으로 양쪽을 먹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.**

1. 진료실에서 수유 전후 체중을 많이 재시나요 45g범위를 말씀 주셨는데 개월 수 따른 기준이 있을까요

**체중을 +-2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전자 저울로 아기의 수유 전 후 의 체중을 측정하면 섭취한 모유의 양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. 출생 후 첫 수주 이내에 수유 전후의 체중의 변화가 45g 미만이면 모유 분비 부족을 추정한다고 합니다. 모유 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해 아기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규격화된 체중계를 (test-weights with the BabyWeigh scale (Medela, McHenry, IL) 사용하고 있어 가정에서, 비의료진이 측정하는 것은 오류와 함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권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**

1. 충분히 비우라고 조언하면 모유량이 계속 늘까 봐 걱정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. 답변 부탁드립니다.

**완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이의 체중 증가가 적절하다면 더 이상 수유 후 남은 모유를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. 충분히 잘 먹고있다면 수유 후 모유를 짜지 말아야 합니다. 계속 비우게 되면 모유 양이 과다하게 생성됩니다. 모유 생성은 수요의 원칙 (원하는 만큼 만들어진다)를 따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만 모유가 생성 되게 됩니다.**

1. 한쪽 유두가 수년간 잦은 상처 및 만성염증으로 유관이 딱딱한 경우 정상 유방만 수유하는 것이 가능할지요?

**한쪽 유두가 문제가 있어 수유가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쪽의 정상 유방만으로도 수유는 가능합니다.**

1. 모유가 많은 경우 젖을 줄이기 위해 식혜를 먹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

**모유를 줄이는 방법으로 식혜에 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 자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.  그러나 실제 식혜를 먹고 나면 모유가 줄어드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어 개인적으로는 식혜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**

1. 만성 두드러기시에 항히스타민제 사용해도 되나요?

**사용가능합니다. 하오나 단발적으로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 가능하나, 만성 두드러기시에는 매일 복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를것 같습니다. PK 연구가 되어 있는 2세대 항히스타민제 Fexofenadine 이나 Loratadine 가 적절할 것입니다. (이들 약제의 장기 복용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. 하지만 Loratadine의 경우는 생후 6개월부터 허가되어 있습니다)**

1. 감기약에 소량 슈도에페드린 사용 가능한가요?

**금기는 아닙니다. 다만 소량이라도 (60mg=1T) 곧 유량이 줄고 작용기간이 12시간이라 젖양이 작은 산모는 안쓰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.**

**대신 코에 뿌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**

**약 자체에 대한 영유아의 영향보다는수유량의 저하가 문제인거 같습니다.**

1. 20.12.20. 현재 아산병원 정상 신생아들은 24시간 모자동실인지요?

**네 24시간 모자동실을 하고 있습니다.**

1. 아산병원에서 C0vid-19 양성이었던 산모 출산이 몇 명이었는지요?

**(질문자이신 정유미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^^)**

1. NICU에 모유를 유축해 와서 보관하게 되는데, polyethylene bag사용은 권장하지 않고 이송 및 냉동보관 시 hard bottle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

**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.**

**우선 감염의 문제가 있겠고, polyethylene bag 보관시 영양 성분의 변화 (특히 지방), 그리고 BPA와 같은 환경호르몬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감염, 영양, 환경호르몬 등의 문제 측면에서 명확하게 polyethylene bag이 더 나쁘다는 결과는 없기에 사용중이지만, 질문하신대로 hard bottle로 변경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**

1. 현재 아산병원 NICU 의료진이 산모를 만나 모유 수유 관련 설명을 하는 분만 전, 또는 분만 후 시점이 언제일까요?

**분만 직후에 설명을 시작합니다.**

1. 주로 모유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주된 의료진은 누구인가요?

**의사, 간호사 모두가 담당하게 됩니다. 특히 모유 수유 관련 전문간호사님이 계셔서 보다 상세하게 1:1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**

1. 1500g미만 미숙아에게 다른 엄마가 유축한 것을 먹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.... 모유가 부족한 경우는 어떨까요? 모유 뱅킹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ㅠㅠ

**여러가지 이유에서 모유 은행 모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다만 모유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산모 교육을 통해서 모유를 늘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.**

1. 산모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도 모유수유를 강력히 거절하는 산모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**지속적으로 모유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.**

1. 설소대수술시 retrognathia 나 micrognathia 가 있으면 relative contraindication 이라고 하던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?

**교과상 Contraindication은 출혈 경향이 있는 환아에 국한됩니다.**

**위의 경우 수면무호흡증의 경향이 있을 수 있어 혀가 앞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. 그러나 설소대가 혀를 앞으로 잡아당겨 고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**.

1. 설소대단축증 수술 전 기능과 모양에 따른 scoring 에 대하여 추천해 주시길 부탁드립니다

**가장 마지막 강의 슬라이드에 넣어 놓은 파일을 적용하시면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.**





1. posterior ankyloglossia 라는 term에 논란이 있는데 진단을 어떻게 하시는지요.

또 수술의 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거 같은데 이 때는 외래 간단 수술보다 z platy 등 좀 더 복잡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

**저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간헐적으로 확인됩니다.**

**설소대가 하악의 안쪽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구강저(Mouth floor)에 붙어있으면서 형의 움직임이 많이 방해되는 경우로 주로 만져보아 혀가 위로 잘 들리는지 확인합니다. 혀와 구강저 사이 공간이 거의 없어 혀와 구강저 사이로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러한 경우 Frenotomy로는 수술이 불가하고 최소한 Frenuloplasty가 필요합니다.**

1. 타병원에서 설소대 수술후 complication으로 의뢰된 경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.

**수술 후 Complication으로 온 경우는 없었고 수술 후 adhesion으로 수술의 효과가 없어 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. Frenotomy라는 수술의 특성상 모유수유를 위해 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은 좋아지지만 여전히 Gudml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나이 먹으면서 발음에 문제되는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. Frenotomy 수술 전 위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**

1. 정유미 원장님 병원에서 마취 시술은 몇 살 이후 적용하시나요

**마취 시술은 하지 않습니다.**